

최근 제조업의 해외진출 트렌드와 영향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오세진 연구위원 (ohsejin@kdb.co.kr)

- I. 국내외 해외투자 동향
- II. 국내 제조업의 해외투자 동향
- III. 국내 제조업의 해외투자 목적
- IV. 영향 및 시사점

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FDI)는 '15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인데 반해, 최근 우리나라 제조업의 해외투자 규모(신고액 기준)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제조업 중별로는 반도체, 스마트폰, OLED 등을 생산하는 '전자 및 통신장비' 업종의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자동차' 업종과 2차 전지, 태양광 발전기 등을 생산하는 '전기장비' 업종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제조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장 규모가 큰 중국, 미국, 유럽, 인도 등 현지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전통산업의 쇠퇴와 새로운 고부가 산업의 등장으로 시장변화에 빠른 대응과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확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따른 무역장벽도 이와 같은 경향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최근 대기업을 해외투자 확대는 세계 상위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의 기업들과 협력뿐만 아니라 신규 기술 획득을 위한 전략적 인수합병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향후 시장 접근성, 자동화 확대, 자율주행차 확대와 AI 발달 등 산업 패러다임 변화로 인해 해외 진출 경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기업을 해외진출로 중소기업과의 연계성 약화 및 국내 고용과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해외로 이전할 여력이 있는 중소기업은 소수일 뿐 아니라, 대기업과의 관계 속에서 공생해온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관계가 끊기면 자생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접근성과 인건비 부담을 뛰어넘는 핵심 고부가 소재, 인공지능, 생산 자동화 솔루션, 응용소프트웨어, 바이오 등 고부가 산업으로의 산업구조 개혁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의 견해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님

I. 국내외 해외투자 동향

1. 전 세계 해외투자 동향

□ 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FDI)는 '15년 이후 선진국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

○ 전 세계 FDI 규모는 '15년 2.0조 달러를 기록한 이후 '18년 1.3조 달러 수준으로 3년간 약 36% 감소

- 동기간 선진국에 대한 FDI 유입 규모는 1.3조 달러에서 0.6조 달러로 약 56% 감소했으며, 개도국은 약 3% 감소하고 체제전환국은 약 4% 감소

○ 국가별로는 영국과 미국에 대한 FDI 유입이 큰 폭으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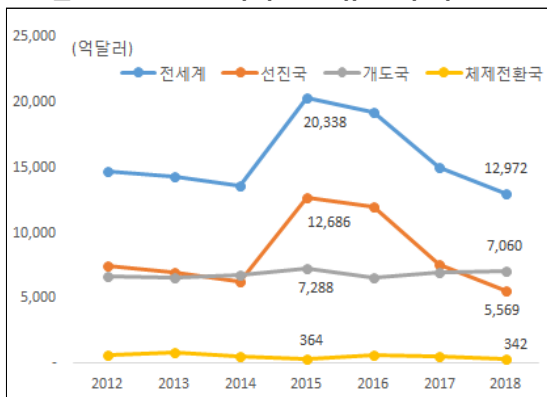
- 영국은 브렉시트로 인한 유럽과의 교역장벽 확대 가능성과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외국인의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16년 1,961억 달러에서 '18년 645억 달러로 FDI 유입 규모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

- 미국은 '17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법인세율 개편* 등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상마찰 확대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로 중국**을 중심으로 FDI 유입 규모가 '16년 4,718억 달러에서 '18년 2,518억 달러로 감소

* 법인세율 개편 전: 소득 구간에 따라 15~35%, 개편 후: 20% 단일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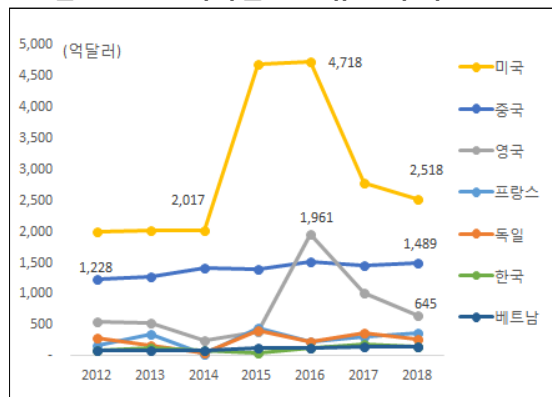
** 중국의 대미 직접투자 추이(억 달러): 460('16) → 290('17) → 50('18)

<그림 1> 전세계 FDI 유입 추이



자료 : UNCTAD

<그림 2> 국가별 FDI 유입 추이



자료 : UNCTAD

2.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동향

□ 전 세계 해외직접투자 감소 흐름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신고액이 빠르게 증가

○ 제조업의 해외투자 신고액은 현지 시장진출 및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대한 대응 등으로 빠르게 증가 중

- 우리나라의 연간 해외투자 신고액은 '14년 359억 달러에서 '18년 593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이중 제조업은 '14년 90억 달러에서 '18년 161억 달러로 큰 폭 증가
- 최근 제조업의 해외투자는 저임금, 현지 시장진출, 세계 시장에서의 협력 강화 측면 등 다양한 목적으로 진출이 확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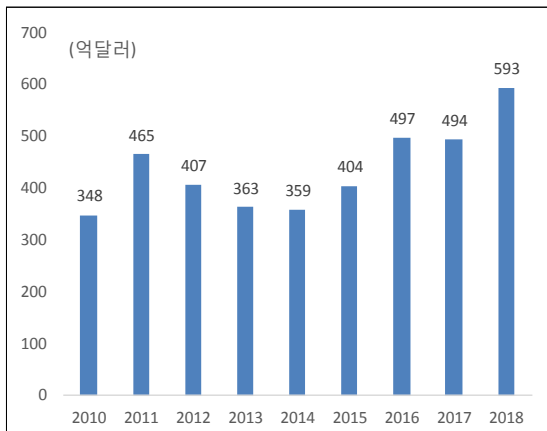
○ 저금리, 저성장 기조 장기화로 국내 연기금 및 금융기관의 국내 대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해외 주식* 및 부동산**에 대한 투자도 증가

* 주식 펀드 中 해외펀드 비중(%) : ('16년) 22.4 → ('17년) 25.5 → ('18년) 24.6

** 부동산 펀드 中 해외펀드 비중(%) : ('16년) 46.8 → ('17년) 50.5 → ('18년) 5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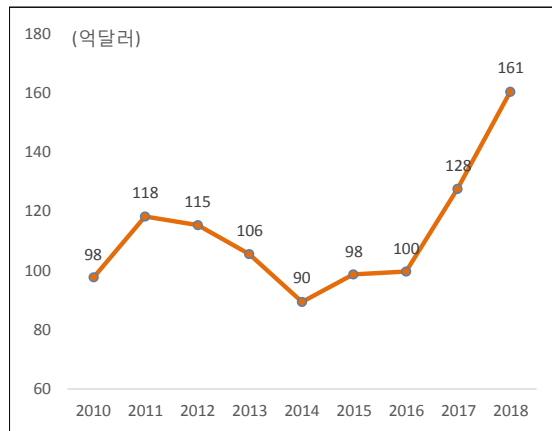
- 금융·부동산업의 해외투자 신고액은 '11년 63억 달러 이후 지속 증가하며 '18년 279억 달러를 기록

<그림 3> 전체 해외투자 신고액 추이



자료 : 수출입은행

<그림 4> 제조업 해외투자 신고액 추이



자료 : 수출입은행

II. 국내 제조업의 해외투자 동향

□ 세부 제조업종별 연간 해외투자는 반도체 등 전자 및 통신장비 업종의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자동차와 전기장비 업종도 빠른 속도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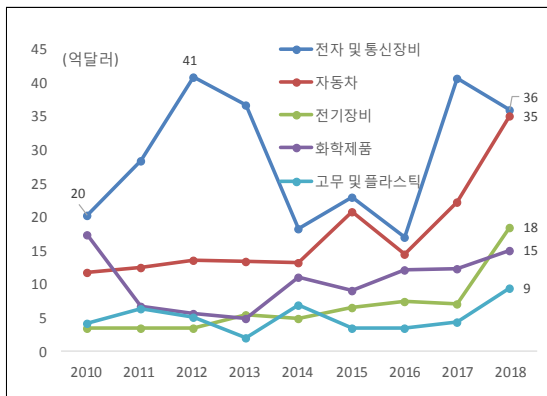
* 이하 해외투자 데이터는 제조업 해외투자 신고액을 기준으로 작성됨

○ (전자 및 통신장비) 반도체, OLED, 스마트폰, 가전 등의 전자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 연간 해외투자 신고금액은 '12년 41억 달러로 급증한 뒤 '14년 세계경기 침체 등으로 감소하였으나 '18년 36억 달러로 증가

* 전자 및 통신장비 제조업 : 반도체, OLED, 컴퓨터, 가전제품, 스마트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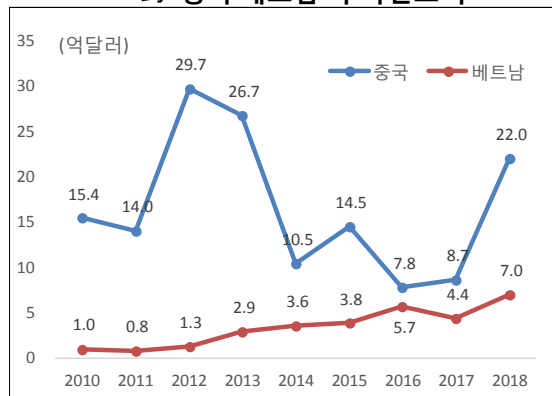
- 국가별로는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13년 이후 감소했던 대중국 투자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을 중심으로 최근 다시 급증
- (중국) LG는 중국에 8.5세대 OLED 생산공장을 구축하기 위하여 약 5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 중('17년~), 삼성은 중국 시안에 약 16.7조 원 규모의 반도체 2기 공장 투자를 진행 중('18년~'20년)
- (베트남) 삼성은 약 2.8조 원을 들여 디스플레이 공장을 증설하기로 결정('17~), LG는 베트남에 기존의 가전 생산설비를 증설 중이며, 약 1조 원을 들여 OLED 생산공장 구축 진행 중('17년~)

〈그림 5〉 제조업종별 해외투자 신고액



자료 : 수출입은행

〈그림 6〉 전자 및 통신장비 업종
對 중국·베트남 투자신고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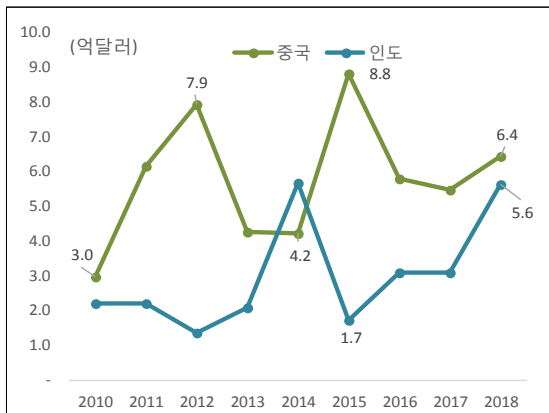


자료 : 수출입은행

- **(자동차)** '10년 이후 대중국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경쟁 심화 등으로 '15년 이후 투자 규모가 감소, 반면 인도에 대한 투자는 빠르게 증가 중
 - (중국) 자동차 업종의 대중국 투자 신고금액은 '12년 7.9억 달러, '15년 8.8억 달러에 달했으나 '18년에는 6.4억 달러로 투자 규모가 감소
 -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 중국 내·외 자동차 제조기업 간의 경쟁 심화로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의 중국 판매가 급감한 것이 투자 규모 감소의 주요 원인
 - * 현대차 중국공장 판매 대수(천대) : 1,142('16년) → 785('17년) → 790('18년)
 - (인도) 자동차 업종의 대인도 투자 신고금액은 '15년 1.7억 달러에서 '18년 5.6억 달러로 증가
 - 현대차는 인도에 약 1조 원의 신규투자를 통해 제작 차종을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17년~'20년)
 - * 현대차 인도공장 판매 대수(천대) : 662('16년) → 678('17년) → 71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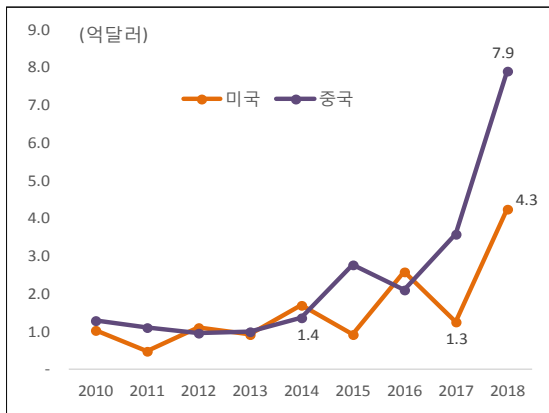
- **(전기장비)** 전기차와 가정용 ESS(Energy Storage System)의 보급 확대에 따른 2차 전지수요 증가와 태양광 산업의 발전 등으로 전기장비 제조업*의 해외투자 신고액도 빠르게 증가
 - * 전기장비 제조업 : 2차전지, 태양광 발전기 등
 - 전기장비 업종의 대중국 투자 신고금액은 '14년 1.4억 달러를 기록한 후 '18년 7.9억 달러로 약 5.6배 증가
 - 삼성SDI는 중국 톈진에 '17년 약 9천억 규모의 배터리 생산시설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향후 투자금액을 더욱 확대할 예정

〈그림 7〉 자동차 업종 對 중국·인도 투자신고액



자료 : 수출입은행

〈그림 8〉 전기장비 업종 對 미국·중국 투자신고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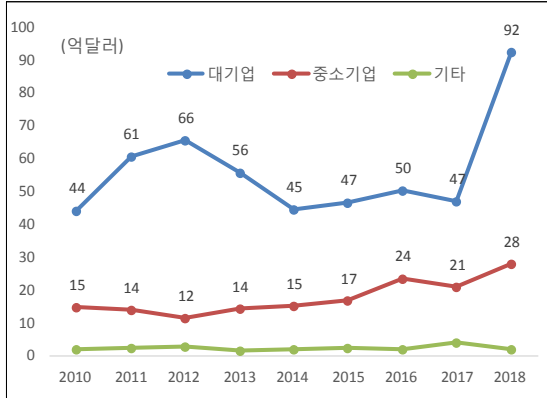


자료 : 수출입은행

□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위주의 해외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중소기업도 완만하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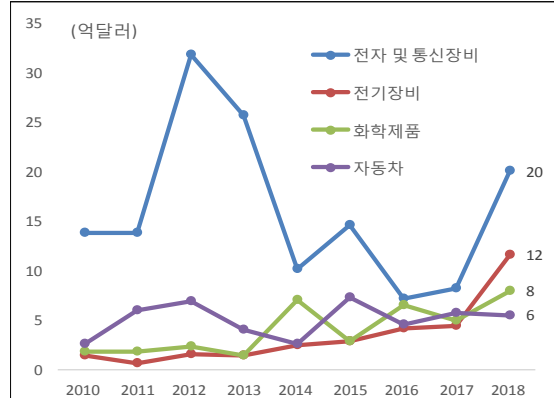
- 대기업은 전자 및 통신장비 업종과 전기장비 업종을 중심으로 해외투자가 급격하게 증가
 - '12년 이후 주춤했던 대기업의 해외투자 신고금액은 '17년 47억 달러에서 '18년 92억 달러로 약 2배 증가
- 스마트폰, 가전제품 등 전자 및 통신장비를 생산하는 대기업들이 생산기지를 베트남 등으로 이전함에 따라 중소기업도 대기업을 따라 꾸준히 해외 진출을 진행 중
 -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분업 관계로 인하여 대기업에 대한 원활한 납품 관계 유지를 위하여 해외투자 신고금액이 꾸준히 증가

<그림 9> 투자자규모별 해외투자 신고금액



자료 : 수출입은행

<그림 10> 대기업 업종별 해외투자 신고금액



자료 : 수출입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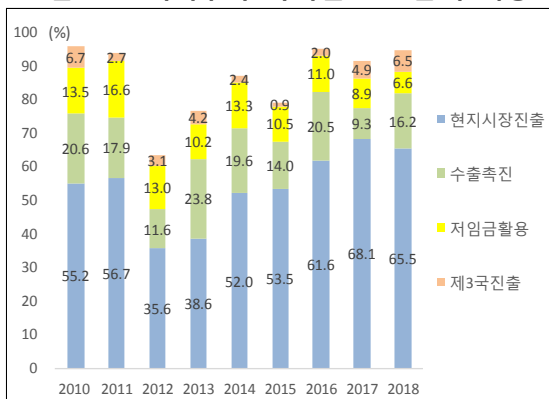
Ⅲ. 국내 제조업의 해외투자 목적

□ 우리나라 제조기업들의 해외투자는 ‘저임금 활용’이 아닌 ‘현지 시장진출’ 목적이 상당 부분을 차지

- 해외투자 목적별 신고금액 비중을 보면 ‘현지 시장진출’ 목적의 투자 비중은 '12년 35.6%에서 '18년 65.5%까지 증가
 - 반면 동기간 ‘저임금 활용’을 위한 투자는 13.0%에서 6.6%로 감소

- 최근에는 중국 및 베트남 시장에 대한 투자도 ‘저임금 활용’보다는 ‘현지 시장진출’을 위한 투자 목적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제조업의 투자목적별 투자신고액 비중을 보면 ‘현지 시장진출’의 경우 중국은 7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베트남도 46.1%로 가장 높은 수준을 차지
 - 그동안 우리나라의 생산기지 역할을 하던 중국과 베트남의 제조업이 발달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과 현지 기업 간의 협력 확대
 - 인도에 대한 투자도 저임금 활용보다 10억 명이 넘는 소비자를 가진 새로운 시장으로서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현지 판매를 위한 공장 설립 증가

〈그림 11〉 해외투자 목적별 신고금액 비중



자료 : 수출입은행

〈표 1〉 국가별 투자목적 비중(%)

	미국	중국	베트남	인도
현지시장진출	70.3	73.8	46.1	84.7
수출촉진	17.6	14.2	26.4	2.6
저임금활용	0.5	4.6	26.0	-
선진기술도입	8.9	5.9	0.1	0.4
기타	1.7	1.6	1.3	12.3

주 : 3개년(2016~2018) 평균

자료 : 수출입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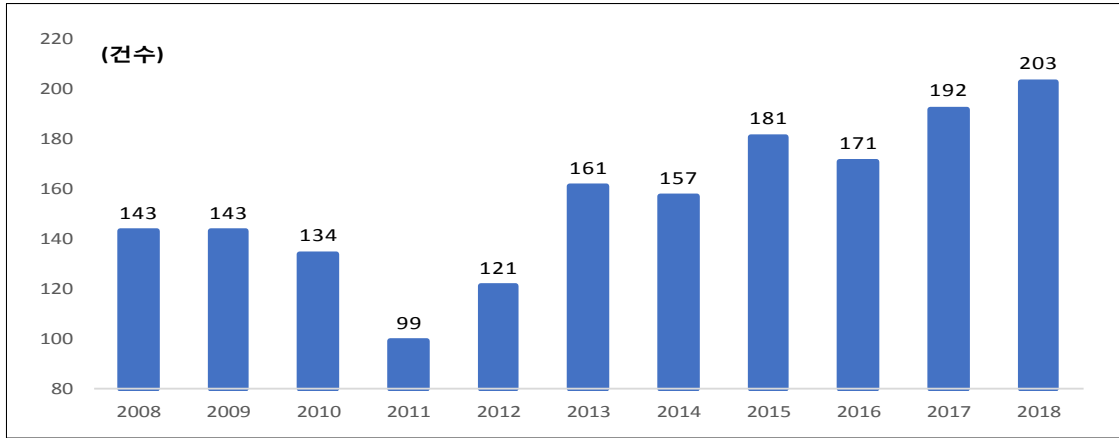
□ 전통산업의 쇠퇴와 새로운 고부가 산업의 등장에 따라 시장변화에 빠른 대응을 위하여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확대 필요성 증가

- 고부가 산업의 경우 낮은 생산단가보다 수요자에 대한 시장 접근성이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
 - 전기차, 2차전지 산업이 빠른 속도로 확대됨에 따라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한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협력 확대
 - *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전망(만대) : 151('18년) → 437('22년) → 1,086('25년)
 - 유럽 자동차 제조 기업인 벤츠, 폭스바겐, BMW에 대한 배터리 공급을 위하여 헝가리 등에 배터리 생산공장 투자 확대
 - * (삼성SDI) 헝가리에 1조 원 규모의 2차전지 공장 신증설 결정 ('18년~'20년)
(SK이노베이션) 헝가리에 1.8조 원 규모의 배터리 생산공장 구축 예정('19년~)
 - 중국 또한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삼성SDI, LG화학 등 대기업의 대중국 배터리 공장 투자 확대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 증설 이유도 스마트폰, 서버 장비 등을 생산하는 중국 내 기업들의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무역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우회하기 위해 시장 규모가 큰 국가에 대해서 현지 생산을 확대

-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과 같은 무역구제 조치가 증가하고 있음
 - 전 세계 반덤핑에 따른 상계관세 등의 조치 건수는 '11년 99건에서 '18년 203건으로 증가 추세
 - 기업들은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는 것보다 해외생산체제 구축을 통해 현지 매출을 확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
- 특히 트럼프 정부 들어 '17년 이후 가전, 자동차, 화학 업종을 중심으로 국내 대기업들의 대미투자가 빠르게 증가
 - LG는 테네시주에 세탁기 공장 설립 결정('17년~19년), 현대차는 앨라바마주에 자동차 제조설비를 증설 결정('18.3월), 롯데케미컬은 루이지애나주에 한국 기업 최초로 화학공장 건설 결정('19년~)

<그림 12> 전 세계 반덤핑에 따른 상계관세 등의 조치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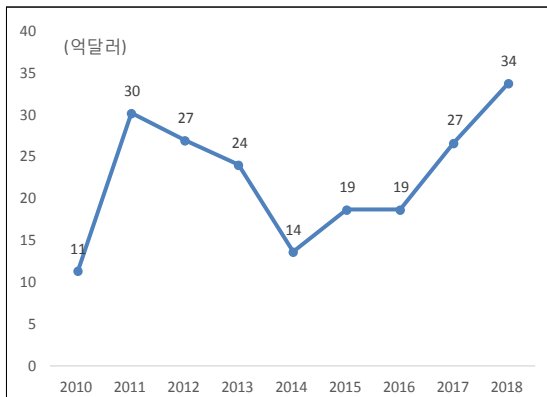


자료 : WTO

□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 확보 또는 해외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분인수 목적의 투자 증가

- 제조업의 지분인수 투자 신고금액은 '14년 14억 달러에서 '18년 34억 달러로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
 - LG는 '18.11월 모바일 가전 분야의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 미국의 AI 프로세스 개발 회사인 '자이어 팔콘'에 투자
 - 삼성은 향후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첨단 전장 장비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미국의 '하만'을 9조 원에 인수('16년)

<그림 13> 제조업 지분인수 투자 신고금액



자료 : 수출입은행

<표 2> 대기업 지분인수 투자 사례

기업	내용
LG	인공지능 프로세서 설계 스타트업회사 자이어팔콘에 투자
	자동차용 프리미엄 헤드램프 제조사인 ZKW를 인수
삼성	로봇기술개발 역량 강화 목적으로 로봇 개발업체인 보사노바 로보틱스에 투자
	하만 자동차용 오디오 업체 인수 자동차 전장 장비 시장 진출 목적

자료 : 언론 보도 종합

IV. 영향 및 시사점

-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국내 제조업은 과거 저렴하게 생산하여 해외로 판매하는 행태에서 벗어나 해외시장에 직접 진출하여 생산 및 판매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변화
 - 우리나라 제조업의 해외투자는 주로 전자 및 통신장비, 전기장비, 자동차 등의 업종에서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
 - 특히 4차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에 민감한 전자 및 통신장비와 전기장비 업종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이 가속화되는 측면이 높게 나타남
 -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을 위한 제3국 진출보다 미국, 중국, 유럽, 인도 등 현지 시장의 기술 및 수요 변화에 빠른 대응이 더 중요해지는 상황
 - 아직은 베트남이 우리나라의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인건비가 상승할수록 생산기지 역할은 점차 쇠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로봇과 공장 자동화 흐름으로 인건비의 중요성은 더욱 낮아지게 될 것으로 전망

- 최근 제조 대기업들의 해외투자 확대는 세계 상위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의 기업들과 협력뿐만 아니라 신규 기술 획득을 위한 전략적 인수합병에 적극적인 수밖에 없음
 - 이것은 국내 내수시장보다 글로벌 시장에 더욱 민감하게 움직이는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 시장 접근성, 자동화 확대, 자율주행차 확대와 AI 발달 등 산업 패러다임 변화로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 다만 대기업의 해외 진출로 인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성 약화 및 국내 고용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 대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더라도 함께 이전할 여력이 있는 중소기업체는 소수일 뿐 아니라, 오랜 세월 대기업과의 관계 속에서 공생해온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관계가 끊기면 자생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음
- 대기업의 국내투자가 감소할수록 중소기업과 연계된 투자 역시 감소할 수밖에 없어 국내 고용 및 투자를 구축할 소지

□ 시장접근성과 인건비 부담을 뛰어넘는 핵심 고부가 소재, 인공지능, 생산 자동화 솔루션, 응용소프트웨어, 바이오 등 고부가 산업으로의 산업구조 개혁 필요

- 고부가 산업에서 공동 연구개발 등 국내 중소 제조업체와 대기업 간의 연계성을 더욱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체의 경쟁력을 향상을 도모할 필요

참고문헌

수출입은행(2019), “해외직접투자 동향분석”, 2018 Annual Report
이용대, 최중윤(2018), “최근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특징 및 영향”, 한국은행
임두빈(2016), “제조업 투자의 패러다임 시프트, 뉴쇼어링”, 삼성KPMG 이슈모니터
한국경제연구원(2019), “18년 제조업 해외투자 증가속도 국내 투자의 2배 이상”, 보도자료
현대경제연구원(2019),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특징과 시사점”, 경제주평 통권 839호
UNCTAD(2019), “World Investment Report 2019”